

예수님, 어서 오세요!

민 송 이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쾅가에 캐럴이 맴도는 12월입니다. 아기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날을 기념하며 기뻐하는 성탄절. 이맘때면 어김없이 거리 여기저기엔 불빛이 반짝이고 캐럴이 울려 퍼집니다. 자칫하면 우리도 이런 세상의 축제 분위기에 마음이 들뜰 수도 있지만, 우리 선생님들과 주일학교 친구들은 우리의 마음 안에 편안하게 아기 예수님을 모실 자리를 꼭 마련해 두어 지요. 그래서 이번 달 게시판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축하하는 우리의 마음을 담아 꾸며 보려고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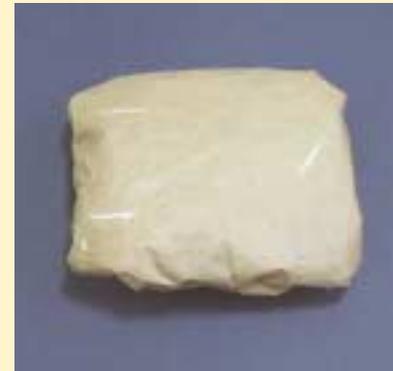
준비물 : 종이컵(초록색, 연두색), 글루건, 열선 커터기, 우드락, 색상지, 한지(갈색), 신문지, 철사, 모루(은색), 뽕뽕이(흰색), 솜, 투명 비닐봉투(색종이 비닐), 리본(금색, 은색), 노끈, 가위, 풀, 칼 등



① 프린트한 글씨 'Merry Christmas~!'를 우드락에 붙인 후 열선 커터기를 사용하여 글씨 모양대로 잘라 낸다.



② 종이컵을 (성탄 트리 크기에 따라 필요한 개수만큼) 반으로 자른다.



③ 신문지를 구겨 입체감 있는 네모 모양을 만든 다음, 갈색 한지로 겹을 감싸서 성탄 트리의 밑동을 완성한다.



④ 철사를 구부려서 별 모양으로 만든 다음, 은색 모루를 감아 준다.



⑤ 반으로 자른 종이컵을 나무 모양으로 배치하여 글루건으로 붙이고, 만들어 놓은 밑동과 별, 글씨 등도 붙인다.



⑥ 투명 비닐봉지에 약간의 솜과 메시지를 적은 색상지를 넣은 다음, 리본으로 선물 포장하듯 묶는다. (여기서 잠깐! 주일학교 친구들과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 묵상하는 시간을 갖고, 진심으로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축하하는 메시지를 담은 것이 중요합니다.)



⑦ 노끈을 매달아 메시지를 적은 선물 봉지를 걸고, 흰색 뽕뽕이로 눈을 표현해 주면 완성.

민송이_엠마

2001년에서 2005년까지 5년간, 서울대학교 수락산 성당에서 중고등부 교사로 활동하며 환경 미화 솜씨를 뽐냈다. 현재 유치원 교사로 일하고 있다.